

광주시, AI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시행계획 확정...사업비 56억 투입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플랫폼기관으로 탈바꿈

전국 최초·유일의 '광역평생학습도시'인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하이브리드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대강의실에서 광주시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열고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및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는 평생교육 시행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하이브리드 러닝 플랫폼 구축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지역을 포괄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습공동체 기반 마을공동체 성장 ▲일-여가-학습 균형을 위한 평생교육 등 6대 전략 120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평생학습연수센터의 광주시민 리더 필수교육 및 분야별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5개 자치구 협력사업인 고령층 대상 특화사업과 평생학습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이다.

광주시는 또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경계선 지능인 정책 연구, 장애인 교육교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제작·보급,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 등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사진·그림·글자가 있는 의사소통판 등을 활용하는 비전지식 방식과 PC·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전자식으로 나뉜다.

광주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평생학습권을 보장받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광주 평생학습 플랫폼기관으로 탈바꿈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연구 등 정책연구와 교육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관·프로그램·강사 등 광주지역 평생학습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평생학습 정보 검색 포털'도 구축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일상화를 위해 교육청·자치구·대학·민간교육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협력하겠다"면서 "특히 장애인·경계선지능인·고령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아 2026년까지 3년간 지원을 인정받은 데 이어 올 1월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받았다. 이처럼 광역시 소속 모든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은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택시 170대 보호격벽 설치 지원

1대당 최대 17만6000원

광주시는 "택시기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격벽은 운전석을 조수석, 뒷좌석과 분리하는 투명 보호벽으로, 승객의 주취 폭행 등 각종 범죄와 감염병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보호장치다.

광주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법인·개인 택시 각 85대씩, 총 170대를 선정해 설치비의 80%

(최대 17만6000원)를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개인택시조합으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와 여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중교통과(062-613-4532)로 문의하면 된다.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의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택시운수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26일 무등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26일 무등도서관에서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워크숍은 ▲주제 강연 '앞으로 10년 작은도서관의 미래' ▲2024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 ▲2024년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https://lib.kwangju.kr/rps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도서관학교, 독서의 달·문화의 달 행사 지원, 미술작품 순회 전시, 주제별 체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작은도서관 지원센터(062-613-7735)로 문의하거나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민속박물관 마한유적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7월까지 연령대별 프로그램 다양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이달부터 7월까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유아 프로그램은 유아 눈높이에 맞춰 개발된 활동지와 교구재를 활용해 신창동 유적과 유물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지난 5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나야 반짝반짝 마한발굴단 ▲저습지 속 마한의 보물을 찾아라 등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대상은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오전 10-12시) 마한인 간생따라잡기-숲, 마한인의 놀이터와 요리조리 마한인의 부엌 등 2개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 '숲, 마한인의 놀이터'는 신창동 유적 속 나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요리조리 마한인의 부엌'은 마한인의 식문화를 살펴본 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들고 체험한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다들 많이 인형으로 만나는 마한 사람들'을 준비했다.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오후 2-4시)에 신창동 유적에서 보이는 마한인의 생활문화를 알아보고, 유추한 마한인의 의복을 다종이 인형을 통해 복원하는 체험을 한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바로 예약을 통해 하면 된다.

세부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광주시, 11일부터 선착순 접수 내구연한 15년 미만 90% 지원

광주시는 "11일부터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올해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만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돼 방지시설 설치, 자가측정 실시, 배출 부과금 발생 및 환경 관리인 선임 등의 법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6대를 포함한 총 322대 저감장치의 부착비용 중 90%(최저가 기준)를 지원한다. 단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11일부터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농업기술센터 "차세대농업 진로체험 받으세요"

20일까지 5개 학교 선착순 선정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중·고등 학생 대상 진로체험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생명 분야 전문가를 파견하는 '차세대 농업 진로체험교육'은 지역농업 현황과 변화하는 미래농업을 전망하고, 농식품생명 분야에 대한 진로 안내, 농업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진다.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imgom53@korea.kr)로 접수하면 광주지역 내 중·고등학교 5개교에 한해 선착순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은 3-7월 중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진행한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융합적 미래 농업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